

# 살면서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요약본

### Module 5. 총괄사례 연습

#### 법적 분쟁해결 사례연습

- 1) 내용증명 작성하기
- 2) 가압류신청서 작성하기
-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 4) 소장 작성하기
- 5) 강제집행신청서 작성하기

## 1. 내용증명 작성하기

김순진은 나몰라에게 빌려간 돈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자 한다. 주어진 사례를 기초로 이미 학습한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자.

[모범 작성해]	통 고 서
<p>발신 : 김 순 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해님아파트 201-1004</p>	
<p>수신 : 나 몰 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달님아파트 101-903</p>	
<p>제목 : 대여금 변제 촉구의 건</p>	
<p>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p>	
<p>발신인은 귀하에게 2009. 2. 1. 금5,000만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9. 8. 1.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으며 그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p>	
<p>② 발신인과 귀하는 중학교 동창으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2009. 1. 31. 귀하가 발신인에게 “나는 요즘 강원도 평창에서 콘도, 호텔, 스키장, 골프장 등 복합 리조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레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도 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위 회사의 브로셔를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다.</p>	
<p>당시 귀하는 발신인에게 주식회사 레저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5,0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50% 수익을 더해 7,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발신인이 “투자에 경험도 없고 돈도 부족하여 못하겠다”라고 거절하자 귀하는 그럼 귀하가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6개월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매달 1%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6개월 뒤에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p>	
<p>이에 발신인은 모자라는 돈 1,000만원은 ③언니(김순자)의 돈까지 빌려 5,000만원을 맞추어 귀하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 발신인은 동창인 귀하를 믿고 무리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처음 3달만 주고 나머지는 지급치</p>	

아니하였으며 뒤늦게 2009. 8. 1.까지 원금과 1달치 이자를 더 얹어 5,200만원을 갚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리고 전화도 받지 않는 행동에 대하여는 참으로 실망이 큼니다.

④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원금과 이자 등의 지급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득이 민, 형사상 법적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인터넷거래내역 1통

2009. 8. 13.

김 순 진 (인)

① 확인 받아 두어야 할 핵심이 되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그 경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다.

② 사건의 경위는 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를 정확히 인용하여 기재한다.

③ 언니 김순자의 사실확인서가 추후 법적 절차에서 제출될 수도 있으므로 뜬금없이 사실확인서가 나오는 것이 되지 않도록 미리 연결고리를 만들어 둔다.

④ 기간을 명시하여 독촉을 하고, 법적 절차에 대한 예고문구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2. 가압류신청서 작성하기

김순진은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으나 나몰라가 내용증명을 받은 후 재산을 빼돌릴 것이 걱정이다. 이에 김순진이 나몰라가 현재 살고 있는 가락동 달님아파트 101 동 903 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소유자는 나몰라로 되어 있으나 은행에서 3 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위 아파트의 시세는 4 억이다.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앞서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고자 한다. 이미 학습한 내용들을 기초로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달님아파트 101 동 903 호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3 달남아파트 제 101 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0 층 아파트

1 층 528.868 m<sup>2</sup>  
2 층 522.540 m<sup>2</sup>  
3 층 517.780 m<sup>2</sup>  
4 층 517.780 m<sup>2</sup>  
5 층 517.780 m<sup>2</sup>  
6 층 517.780 m<sup>2</sup>  
7 층 517.780 m<sup>2</sup>  
8 층 517.780 m<sup>2</sup>  
9 층 517.780 m<sup>2</sup>  
10 층 517.780 m<sup>2</sup>  
지층 503.780 m<sup>2</sup>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3 대 25492.1 m<sup>2</sup>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 9 층 제 903 호 철근콘크리트조 85 m<sup>2</sup>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5492.1 부의 33

**[모범 작성례]**

**부동산 가압류 신청**

채 권 자 김 순 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해남아파트 201-1004  
채 무 자 나 물 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달남아파트 101-903

①청구채권의 표시 금 52,000,000 원(2009. 2. 1.자 대여금 원금 및 이자채권)

②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과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③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9. 2. 1. 금 5,000 만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9. 8. 1.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2009. 1. 3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나는 요즘 강원도 평창에서 콘도, 호텔, 스키장, 골프장 등 복합 리조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레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도 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위 회사의 브로셔를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식회사 레저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5,000 만원을 투자하면 6 개월 뒤 50% 수익을 더해 7,500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가 “투자에 경험도 없고 돈도 부족하여 못하겠다”라고 거절하자 채무자는 그럼 채무자가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5,000 만원을 6 개월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매달 1%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6 개월 뒤에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모자라는 돈 1,000 만원은 언니(김순자)의 돈까지 빌려 5,000 만원을 맞추어 채무자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 채권자는 동창인 채무자를 믿고 무리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처음 3 달만 주고 나머지는 지급치 아니하였으며 뒤늦게 2009. 8. 1.까지 원금과 1 달치 이자를 더 얹어 5,200 만원을 갚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리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④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연락을 끊고 몰래 이사까지 감행한 태도로 보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합니다.

4.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                |     |
|----------------|-----|
| 1. 인터넷거래내역     | 1 통 |
| 1. ⑤사실확인서(김순자) | 1 통 |
| 1. 부동산등기부등본    | 1 통 |
| 1. ⑥가압류진술서     | 1 통 |

2009. 8. 14.

위 채권자 김순진(인)

⑦서울동부지방법원 귀 중

### 별지

### ⑧부 동 산 목 록

#### 1 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3 달남아파트 제 101 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0 층 아파트

1 층 528.868 m<sup>2</sup>

2 층 522.540 m<sup>2</sup>

3 층 517.780 m<sup>2</sup>

4 층 517.780 m<sup>2</sup>

5 층 517.780 m<sup>2</sup>

6 층 517.780 m<sup>2</sup>

7 층 517.780 m<sup>2</sup>

8 층 517.780 m<sup>2</sup>

9 층 517.780 m<sup>2</sup>

10 층 517.780 m<sup>2</sup>

지층 503.780 m<sup>2</sup>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3 대 25492.1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 9 층 제 903 호 철근콘크리트조 85 ㎡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5492.1 ㎡의 33 ㎡.

- ① 받아야 할 돈을 서식과 같이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내역을 기재한다.
- ② 가압류할 부동산을 신청서 본문에 기재하면 복잡해지므로 실무상 예외 없이 별지로 기재한다.
- ③ 법률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그 경위를 설명하는 방식이 간명하다.
- ④ 왜 가압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기재하는 부분이다. 서식의 통상적인 문구에 해당 사건의 경우를 약간 부가하면 된다.
- ⑤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므로 경위를 알고 있는 김순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 ⑥ 가압류진술서 법원양식에 해당사항을 체크하여 첨부한다(양식 참조).
- ⑦ 금전에 관한 법적절차에서는 가압류사건이건, 소송사건이건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의심스러우면 접수하기 전에 접수직원에게 물어서 확인한다.
- ⑧ 가압류 할 부동산 목록을 기재하는 곳이다.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 목록의 마지막에는 추가기재를 할 수 없도록 실무상 “끝”이라고 표시한다.

※ 내용증명은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고 나서 접수시키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을 수 있어 좋다.

###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김순진의 내용증명을 받고서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으로 답장을 해왔다.

내 용 증 명	
발신 : 나 물 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달남아파트 101-903
수신 : 김 순 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해남아파트 201-1004
제목 : 대여금 변제 촉구에 대한 답변	
귀하의 일익 변창하심을 기원합니다.	
<p>발신인이 2009. 2. 1. 금 5,000 만원을 귀하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귀하가 주식회사 레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에 대하여 잘 모르니 발신인에게 투자를 해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지 발신인이 귀하에게 빌린 것이 아닙니다. 발신인이 귀하의 돈을 받은 다음날 바로 주식회사 레저와 체결한 투자약정서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p> <p>귀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레저는 부도가 났으며, 발신인 또한 주식회사 레저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p> <p>귀하의 어려운 상황은 잘 알겠으나 귀하에게 주식회사 레저의 브로셔를 보여 준 잘못밖에 없는 발신인에게 귀하의 투자손실을 배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p>	
<p>첨부서류</p> <p>1. 투자약정서 1 통</p> <p>1. 신문기사 1 통</p>	
2009. 8. 20.	
나 물 라 (인)	

나물라의 내용증명에 첨부된 투자약정서를 보니 나물라는 정말로 2009. 2. 2.에 주식회사 레저와 투자약정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신문에는 "리조트 개발 빙자 사기"라는 제목하에 사기꾼들이 주식회사 레저라는 회사를 만들어 리조트개발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여 다단계로 투자를 유치한 다음 도주하였는데 피해금액의 규모가 수백억원 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다.

내용증명에 나타난 나물라의 태도로 보아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순순히 돈을 줄 것 같지가 않다. 김순진은 일단 소(訴)를 제기하기보다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모범작성례]

## 지 급 명 령 신 청

채 권 자 김 순 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해남아파트 201-1004

채 무 자 나 물 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달남아파트 101-903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52,000,000 원

①독촉절차비용  
금 47,160 원(인지대 : 23,000 원, 송달료 : 24,160 원)

### ②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2,000,000 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 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 ③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9. 2. 1. 금 5,000 만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9. 8. 1.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2009. 1. 3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나는 요즘 강원도 평창에서 콘도, 호텔, 스키장, 골프장 등 복합 리조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레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도 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위 회사의 브로셔를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식회사 레저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5,000 만원을 투자하면 6 개월 뒤 50% 수익을 더해 7,500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가 “투자에 경험도 없고 돈도 부족하여 못하겠다”라고 거절하자 채무자는 그럼 채무자가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5,000 만원을 6 개월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매달 1%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6 개월 뒤에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모자라는 돈 1,000 만원은 언니(김순자)의 돈까지 빌려 5,000 만원을 맞추어 채무자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 채권자는 동창인 채무자를 믿고 무리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처음 3 달만 주고 나머지는 지급치 아니하였으며 뒤늦게 2009. 8. 1.까지 원금과 1 달치 이자를 더 없어 5,200 만원을 갚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리고 전화도 받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재를 힘들게 파악하였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및 이자 52,000,000 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 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④



###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1. 인터넷 거래내역 1 통
- 1. 사실확인서(김순자) 1 통
- 1. 신청서부분⑤ 1 통
- 1. 납부서 1 통

2009. 8. 25.

위 채권자 김 순 진(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 중

① 지급명령신청의 인지대는 소(訴)의 1/10밖에 안되어 저렴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소절차로 가더라도 소의 인지대에서 이미 납부한 인지대는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계산방법은 직업적으로 소송을 하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한 공부할 필요가 없으며 접수직원에게 계산해 달라고 하면 된다.

②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5,200만원 중 5,000만원에 대하여만 20%의 이자를 붙인 이유는 나머지 200만원은 이자이기 때문이다. 이자에 다시 이자를 계산(복리계산)하여서는 안 되며 원금에만 이자를 계산한다.

③ 신청이유는 가압류신청서의 기재내용과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신청의 성격에 맞게 편집한다.

④ 신청이유의 결론부분으로 청구취지와 대응되도록 기재하여 준다.

⑤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부분을 1부 제출한다.

## 4. 소장 작성하기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나몰라에게 송달된 경우 나몰라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2 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나몰라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김순진 앞으로 소송절차에 대한 안내통지가 오게 된다. 이 경우 지급명령절차는 소(訴)절차로 전환되고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장으로 취급되어 별도로 다시 소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추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여기서는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취지에서 김순진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대여금 청구의 소의 소장을 작성해보자.

## 소 장

- ① 원 고 김 순 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해님아파트 201-1004  
② 전화 : 010-0000-0000
- 피 고 나 물 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달님아파트 101-903  
전화 : 011-0000-0000

### ③ 대여금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00,000 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④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1. 금 5,000 만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9. 8. 1.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2. 원고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으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2009. 1. 31. 피고는 원고에게 “나는 요즘 강원도 평창에서 콘도, 호텔, 스키장, 골프장 등 복합 리조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레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도 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위 회사의 브로셔를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레저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5,000 만원을 투자하면 6 개월 뒤 50% 수익을 더해 7,500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투자에 경험도 없고 돈도 부족하여 못하겠다”라고 거절하자 피고는 그럼 피고가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5,000 만원을 6 개월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매달 1%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6 개월 뒤에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모자라는 돈 1,000 만원은 언니(김순자)의 돈까지 빌려 5,000 만원을 맞추어 피고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동창인 피고를 믿고 무리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처음 3 달만 주고 나머지는 지급치 아니하였으며 뒤늦게 2009. 8. 1.까지 원금과 1 달치 이자를 더 얹어 5,200 만원을 갚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리고 전화도 받지 않아 원고는 피고의 소재를 힘들게 파악하였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및 이자 52,000,000 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⑤ 입 증 방 법

- |                    |            |
|--------------------|------------|
| 1. ⑥갑 제 1 호증       | 인터넷거래내역    |
| 1. 갑 제 2 호증        | 사실확인서(김순자) |
| 1. ⑦갑 제 3 호증       | 통장거래내역     |
| 1. ⑧갑 제 4 호증의 1, 2 | 각 내용증명     |
- 나머지 자료는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1 통
- 1. 소장부분 1 통
- 1. 비용납부영수증 1 통

2009. 8. 25.

위 원 고 김 순 진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증

- ① 소(訴)에서 당사자는 원고, 피고가 된다.
- ②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소장이 각하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소기재만으로 송달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번호를 기재해 두면 좋다. 이는 소장뿐만 아니라 앞서 작성한 가압류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사건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 ④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와 달리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청구하지 않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청구만 한다. 이는 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소송비용액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개의 절차에서 정해진다.
- ⑤ 소에서는 "소명"이 아니라 증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전의 절차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사건 경위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도 항목을 나누어 기재한다.
- ⑥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갑"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을"호증이다.
- ⑦ 김순자가 1,000만원을 김순진에게 보내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김순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

⑧ 내용증명에는 사건 초기단계에서의 당사자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제출한다.

## 5. 강제집행신청서 작성하기

소송결과 김순진의 전부승소로 판결이 났고 나몰라가 판결선고 후 2 주가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아 사건은 김순진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나몰라가 최초 3 달간 1%의 이자와 일치하는 금액인 50 만원씩을 김순진에게 납부한 사실이 판사에게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확신을 준 듯하다. 물론 나몰라는 50 만원을 전에 빌린 150 만원을 갚은 것이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까지 내세웠으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법원을 설득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김순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조목조목 사실에 근거하여 누구라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순진이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나몰라에게 이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나몰라는 요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2 달 뒤에 빌려준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란다. 그러면서 당장은 3,000 만원까지는 어떻게 빌려서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00 만원에 합의해 준다면 당장 주겠단다.

김순진은 소송을 하면서 겪은 나몰라의 태도에 비추어 2 달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고자 한다.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이미 가압류 해둔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 보자.

### ①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수입인지

5,000 원

채 권 자 김 순 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해남아파트 201-1004  
채 무 자 나 몰 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달남아파트 101-903

②청구금액 : 금 52,000,000 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 원에 대한 2009 년 9 월 1 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③경매의 원인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가단 12345 호 대여금청구사건의 2009 년 11 월 29 일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집행력있는 정본④ | 1 통 |
| 2. 송달증명서     | 1 통 |
| 3. 부동산등기부등본  | 1 통 |

2009. 12. 10.

위 채권자(인)

⑤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선순위 은행 근저당 3억원을 제외하고도 채권자의 채권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집행 대상으로서 나쁘지 않은 편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한다.

② 청구금액란은 판결문 주문 제1항을 그대로 옮기면 된다. 2009. 9. 1.을 이자의 기산일로 한 것으로 보아 사건에서 소장부분이 2009. 8. 31.에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③ 서식의 문구에 해당사건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대입하여 기재하면 된다.

④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보통 승소 판결문 + 집행문이다. 집행문은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

⑤ 부동산강제집행의 관할법원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이다. 따라서 여기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기재된 것은 경매 대상 물건인 나몰라 소유의 아파트가 위 법원 관할인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지 민사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었기 때문이 아님을 유의한다.